

서밋의 축복

사도행전 19:21

류광수 목사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준 약속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한 첫 번째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다. 램넛트 일곱 명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그런데 이 램넛트들이 빨리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늦게 알아들은 사람이 있다. 서밋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유도 있다. 방법도 있다.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다. “내가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내실 때 첫 번째 하신 약속이었다. 이스라엘이 제앙을 일곱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언약 가진 사람을 세우셨다. 이 사람들을 서밋으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밋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울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다.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행19:21).” 이것은 굉장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본 것이다. 그래서 이 서밋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학교에 갔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았다. 90%의 사람들은 대부분 활동도 하고 뭘 많이 하고 있었다. 내가 누린 축복이 무엇이었던가? 나는 그때 별로 돈이 없었다. ‘어떻게 하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현장을 가자. 내가 앞으로 박사나 교수가 될 것 같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나는 목회를 결정했다. 현장을 가자.’ 그때 마침 그때 우리 대학에는 옆에 복음병원이 붙어있었다. 그래서 빈 시간에 계속 간 것이다. 암환자들을 찾아갔다. 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서밋의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밋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나는 공부도 못 하고 우리 아이도 공부를 못 하나까 서밋이 아니네?’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것을 발견 못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도 현장을 10년 쯤 가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쁜 바보라지만, 뭔가가 생기더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확실하다 하는 게 생겼다. 그래 가지고는 영도로 오게 된 것이다.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했다. 가 보니까 너무 환경이 어려웠다. 거기에서 또 이 축복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아마 알 것이다. 내가 간판을 서른 개 만들었다. 왜 서른 개 만들었는가 하면, 내가 1주일 내내 가서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서른 번 밖에 없었다. 말을 알아듣는 교인들의 집에 (간판을) 붙였다. 성경공부하는 시간과 날짜를 붙였다. 그 시간에 그것을 보고 오라고 내가 서른 군대를 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교역자와 청년들도 보고 나가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00군대가 열렸다. 영도 지역에 난리가 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전도운동의 문이 열리고 그러는 것이다.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이 내가 10년 동안 본 것이다.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갔더니,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도, 유년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그렇지 않나? 관리집사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사무실까지 돌아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청소했는데, 그 교회 생기고 나서는 가장 청소가 잘 됐다고 판정을 받았다. 교사들이 놀란 것이다. “어, 사무실이 어찌된 일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교사들, 아이들을 조사해 찍 해 보니까, 교사들이 주일에 교사하는 것을 옹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것을 통계로 보여줬다. 그냥 보여주면 안 되니까 차트로 만들었다. 자기들이 놀라더라. “우리가 결실을 저렇게 많이 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조건을 걸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교사들은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겁니다. 밥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1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잠자는 아이들은 깨우고,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곧 중학교로 가지 않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왔다. 그렇다면 6학년 아이들을 설득했다. 제대로 복음 듣고 말씀공부를 하다가 가야 할 것 아닌가. 그것밖에 안 했다. 그 유명한 교회, 10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늘 80명, 50명이 모이던 주일학교가 천 명이 넘어가게 되었다. 서밋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것 아닌가. 그랬더니 당회에서 나에게 중고등부를 맡겼다. “줍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었는가. 걸어서 모든 중고등학교를 다 찾아갔다. 나는 그제 서밋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 언약을 가지고 영도로 간 것이다.

서밋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어디에까지 응답이 오는가? 이 세상을 쳐다보니까 정말 우리 램넛트들과 많은 제자들을 서밋 되도록 집중시키는 전문 학교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응답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나중에 영상을 조금 보여 드리겠다. 우리는 힘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이미 3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스무 살짜리 인재를 뽑아서 훈련시키고 있다. 자원해서 1년 내지 3년, 휴학하고 훈련을 받는다. 모르본교다. 사실상 미국을 장악했다. 서밋으로 간다는 이

축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모른다.

서론

(1) 무슨 서밋인가? 여기 있는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까,

① 다른 것은 일등을 못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포인트만 잡는다면 누구든지 역사가 일어난다. 이리다보니, 내게 고민이 하나 생겼다. 무슨 고민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 고민이 솔직히 생기는 것이다. 교회 가니까 철야기도를 하는데, 나는 굉장히 힘들었다. 내가 전도사 때 철야기도를 갔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분명히 안 갔을 것이다. 힘들었다. 주역 삼장 하는데 나는 안 하고 그랬다. (웃음)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도에 대한 책을 보고, 기도응답받은 사람들의 증거를 들어보기도 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정말 24 기도하도록 응답을 주셨다. 어려움이 오든 실수를 하든 응답을 받은 성공을 하든 간에, 이것을 꼭 하도록 만드셨다.

② 여러분, 이 속에서 나오는 학업, 직업, 사업을 하라는 말이다. 그것을 보고 기쁜 서밋이라고 한다. 이러면, 여기에는 어떤 축복이 나오는가 하나까, 재창조의 축복이 온다. 그렇지 않나.

③ 이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그것을 보고 문화서밋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야 한다. 성도에게 준 축복이 이것이다. 문화 서밋이 된다는 말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긴 것이다. 요셉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윗이 싸워서 왕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다. 계속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을 없애고 왕으로 세우셨다. 만약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모르고 밖으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불신자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이 축복을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불신자처럼 살아야 한다. 겨우 눈곱 떼고 주일에 교회 와야 한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못 누리는 것은 정말 고통 중의 고통이다. 그렇지 않나. 말하자면, 100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큐가 낮다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이큐 높은 것도 문제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아이큐가 낮으면 얼마나 고생이 되겠는가?

(2) 이러면 뭐가 보이는가 하나까, ‘내 평생에 이것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보인다. 내게는 627지 정도로 확실한 언약이 왔다. 평생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내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삶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겠다는 그 말이다.

(3)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저절로 응답, 성공, 승리,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보니까 성공의 자리에 있다. 그것은 세상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램넛트 일곱 명이고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다. 히브리서 11장이다. 어느 날 고난당하는 줄 알았는데 성공의 자리에 딱 있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핍박 당하는 줄 알았는데 로마를 정복하게 되었다. 이 서밋의 축복이 엄청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로 시작하면서, 어떤 언약을 잡고 가야 하겠는가? 우리가 자료를 조금 한 번 보자. 코카콜라가 나왔다. 왜 나왔나? 전 세계 나라를 237개 나라라고 한다. 아직 1/3 이상은 복음이 안 들어갔다. 거의 절반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229개 나라를 장악한 단체가 코카콜라다. 모르본교가 나왔다. 젊은 인재들이 일어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엘리트층을 움직이도록 파고들고 있다. 유대인의 성인식이 나왔다. 썩크탱크들이 나왔다. 뭔가? 전부 서밋을 만들어내는 직업들이다. 우리는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자립교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동안에, 프리메이슨은 미국 전 학교를 찾아가서 인재를 찾아내서 학비를 대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못 하더라도 기도는 바르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나. 내가 못 할지라도 길은 맞는 길에 들어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대단하다. 미국 정부에 이야기한다. 그 많은 학교에 인재들의 학비를 자기들이 대겠다고 하나까 얼마나 정부에서 좋아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뽑아올리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아는 것은 프리메이슨을 모르는 것이다. 따로 모은다. 거기에서 일이 벌어진다. 전부 집신운동을 한다. 굉장히 좋은 말로, “새로운 너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라.” 한다. 집신 체계를 해 버리면 끝나 버린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무서운 시대다. 오늘 여러분들이 2018년에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1. 서밋 전도

서밋 전도를 모르면 제대로 전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서밋 전도하지 않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낮은 것을 전도해 왔다. 내가 15년, 17년 전에 러시아에 갔다. 전도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문이 많이 열리는지

모른다. 러시아가 너무 가난했다. 이들 동안 이런 나이의 여자가 신발을 들고 서 있더라. 어제 있길래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날에 보니까 또 신발을 들고 있었다. 하도 궁금해서 왜 저렇게 서 있느냐 물어봤다. 자기가 신던 신발인데 팔려고 들고 있다는 것이다.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이 몰려왔다.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빵 주는 것을 얻어먹으려고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그날 밤이었다. 내가 자는 호텔이 큰 호텔이었다. 밤새 음악 소리가 나는데, 나가서 살펴봤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때 러시아에서 제일 비싼 차였다. 벤츠급 되는 차다. 이런 차들이 그 호텔에 몰릴 듯이 몰려오는 것이다. 그것을 대놓고 밤새 노는 것이다.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했다. 지금도 그 선교사님 이름이 기억난다. 김상민 선교사님이라고, 다락방 아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했다. "선교사님, 빵 주지 말고 그냥 집회 합시다. 내일 빵 안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대답이 가가 차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지금까지 많이 왔으니 괜찮습니다. 내일은 빵 안 준다고 해 주세요." 굉장히 난처한 모양이다. 자기가 목회를 하니까 잘 알지. 그러면 아무도 안 온다는 것이다. 그래도 강사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광고를 했다. 통역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 그날 밤에 약간 고민이 생겼다. 진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웃음) 그 다음 날에 너무 많이 왔다. 너무 많이 와서 밀려서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다. 왜 이 말을 하는가. 우리는 진짜로 많은 복음 받아야 할 엘리트들, 인재들이 있는데 다 놓치고 있다.

- (1)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게 학교를 파고드는 학사 전쟁이 시작되었다.
- (2)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션 홈 전략으로 곳곳의 학교들을 파고들고 있다.
- (3) 심지어 많은 힐링 스테이 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임마누엘서울 교회를 보니까 미션 홈을 많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다. 많이 만들어도 된다. 지금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2. 서밋 선교

여러분, 서밋 선교라는 말을 모르면 실제 선교 못 한다. 그래서 바울이,

- (1) 사도행전 17:1, 18:4, 회당으로 파고든 것이다. 중요한 인재,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8, 두란노에서, 회당에 먼저 들어간 것이다. 너무 중요한 것이다.
- (2) 오늘 읽은 대로, 사도행전 19:21,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11,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7:24,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밋 선교를 모르면 제대로 선교가 안 된다. 이런 언약들을 굳게 붙잡으셔야 한다.
- (3)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많은 나라들에 인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컴패션(compassion)이라 해서 전략을 쓰고 있다. 좋다.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움직일 때, 중직자들은 많이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조금 하셔야 한다. 될 수 있으면 후진국에, 인재들이 있다. 행정적으로 연결되어서 돈 주고 편지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 실제 인재를 키우기도 하고 가족삼기도 하고 하면서 세우면 굉장한 일들이 빨리 일어난다. 하나님에 예비해놓은 인재 한 명이 일어나는 일들은 세계복음화에서 거의 지금까지 흘러온 일이다.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한 번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

3. 서밋학교

이것을 줄여 보겠다. 서밋학교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임마누엘에서 필요하다. 본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미 모르몬에서는 허버드, 매사추세츠 같은 유명한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3년 동안을 휴직하고 있다. 그래서 훈련받아서 세계로 파송되는 것이다.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다. 그러니 지금 전 세계가 아무도 모르게 후대들을 다 몰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 가 보니까 교회는 꿈도 못 꾸고 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 김집사 박집사 같등에 사로잡혀서 그것 하는데 99.9%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그런데 사단을 섬기겠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전 인재들을 사로잡아가고 있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드디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3차 산업을 장악해 버렸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각이 없다 해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난다 하면 분명히 중요한 영향이 오게 되어 있다. 나와 전혀 상관없다 싶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언약들을 잘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성경을 자세히 보라.

- (1)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왜 사무엘을 언약계 곁에, 왜 목장에 있는 다윗을, 무엇 때문에 저 요단까지 가서 엘리사에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가. 이것들과 관계가 있다. 잘 봐야 한다.
- (2)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런 중요한 것들이 나온다. 세 안식일이라고 했다(행17:1-9). '안식일마다'라고 했다(행18:4). 그리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9장이다.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운동이다. 사도행전 19장. 이런 이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기 아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3) 그래서 제1 RUTC운동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모으는 것이다. 그러면 제2 RUTC운동은 무엇인가? 현장을 파고드는 것이다. 계속 해야 한다. 제3 RUTC운동은 무엇인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다. 간단하다. 전 세계, 전국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빨리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서밋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그러면 연결된다. 어렵다 쉽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따라 행하실 것이다.

결론

자,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라.

(1) 우리 중직자, 혹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셔서,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분들은 3제자 사업을 시작하라. 3제자 아실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전도자들만 도운 비밀결사대. 후대들만 키운 램넌트 미니스트리. 정말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많은 문화를 바꿀 수 있다. 홀리메이슨. 이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라는 것이다. 능력있는 분들은 할 수 있다.

(2) 그리고 우리 램넌트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학업을 시작하라. 어떤 부모님이 내게 물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10% 안에 못 들어가면 전공을 바꿔야 합니까? 아이가 1% 안에 못 들어가면 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까?" 질문할 만한 내용이다. 꼭 그렇지는 않다. 오직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한다. 음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똑같이 음악하면, 오직을 찾아서 1% 안으로 못 들어가면 고생하게 된다. 그래서 램넌트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학업을 시작하라. 여러분, 이해해 버리면 굉장히 쉽다. 나는 학생 때 공부하면서 전도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10%, 1%에 금방 들어갔다. 왜냐,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경쟁할 게 없었다. 가면 많이 있었다. 이렇다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현장을 가면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최 교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김근호라는 교수님이 있었다. 이분이 강의한 것이 한국학이었다. 물론 그분의 전문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강의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 한국학 중에서 사머니즘을 설명한 것이다. 무당들을 두고 한 학기를 강의했다. 나는 전도현장을 갈 때였다. 눈이 떠졌다. 정말 도움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게 살아있는 도움이 되었다. 그게 완벽한 답은 아니었는데, 그 질문을 던진 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계속 현장가다가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강의를 끝났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강의 마치는 날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뭘니까?"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사머니즘을 강의했는데, 그게 어째서 한국학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한국학이 아니라 한국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런데 질문하는 태도가 있지 않나? 교수님을 조롱하는 듯이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을 하고 끝나면 되는데, 또 다른 쪽에서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그 학생은 여학생이었다. 학교에서 내가 나이가 많은 축이어서 말을 잘 안 했는데, 그때 이야기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 그리고 경건회 예배를 드리는데, 교수님이 교수석에 앉지 않고 저 뒤에 앉아계시더라. 나중에 전도운동을 하다가 감천에 집회를 갔는데 김근호 교수님이 계셨다. 거기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다. 교수님을 조롱하고 질문했던 학생이 나중에 미문화원에 불을 질렀던 문부식이었다. '아, 이렇게도 사람이 보는 눈이 차이가 나는구나.' 자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데 나는 너무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 사람들 말을 하고 맞다 안 맞다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램넌트들에게, 여러분의 학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학업이어야 한다 그 말이다. (3) 나는 능력이 없다 하는 사람도 많다. 걱정할 것 없다. 제일 비덕에서 서밋이 되라. 나는 만나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해 준다. 워너메이커다. 점원으로 들어갔지만 백화점왕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요 서밋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밋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올해 출발해야 한다.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제일 잘 놀면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노는지 연구해 보고 기도해 보라. 그게 발견 안 되면 사실 일 집중기도 해 보라. (웃음) 여러분은 세계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전도자들이다. 결단의 밤에 이야기했다. 위기, 아니다. 중요한 답을 못 찾으면 위기지만, 답을 찾으면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올해도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사람 살리는 정체성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서밋운동해서 세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발견하는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